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안심 공공의료도시’ 만든다

순천시, 일상 생활 책임지는 의료안전망 구축
소아·산단 근로자 등 맞춤 응급의료수요 대응



지난 5월 성기틀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헬기장에 소방헬기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가소아·응급·심뇌혈관·재활·의료돌봄을 연계한 ‘365일 안심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기존 의료자원을 촘촘히 연결하고 부족한 인력·시설·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며 2030년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학교 및 향후 설립될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이 함께 성장하는 의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야간·휴일 소아진료와 중증응급 대응, 심뇌혈관 골든타임 확보, 회복기 재활 등 시급한 분야부터 확충해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과

휴일진료부터 응급·중증치료, 회복기 재활까지 이어지는 소아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먼저 소아응급 인력과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2028년에는 소아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2029년에는 입원과 중증환자 최종치료, 배후진료까지 가능한 ‘순천형 소아응급실’ 운영을 목표로 소아응급 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는 아이가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 병원’도 3개소(현대여성아동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 플러스아미미코병원)를 운영해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의료 공백을 줄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건수는 3만1554건으로, 전체 이용자의 34.4%가 순천 외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부터 치료·재활·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역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성기틀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회 연속 재지정돼 전남 동부권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46억원을 투입해 뇌혈관조영실과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전문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24시간 전문치료 체계와 급성기 치료에서 조기재활까지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신실 대학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와 의학교육·연구를 담당하고, 성기틀로병원은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생활권 응급진

료, 여성아동병원은 분만·소아진료, 순천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재활·의료돌봄·산재 치료를 강화한다. 시는 대학병원 설립 시 산업단지 근로자의 응급·산재·화상사고 대응 기능 강화를 적극 제안하고, 가족을 위한 소아·분만·재활의료도 확충해 기업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순순로 순천시장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부터 중증응급과 심뇌혈관, 재활과 돌봄까지 시민에게 지금 필요한 의료안전망부터 강화하겠다”며 “국립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을 구심점으로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시민은 물론 기업 근로자가 족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의료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신안군, 공유재산 교환 놓고 불법행정 ‘의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8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사업이 불법으로 강행됐다는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지도 기후대응숲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과 관련, 군은 지난 7월 민선9기 인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상 문제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앞서 2023년 11월 지도 기후대응숲 조성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2024년 1월 단독 1인을 접수했고,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졌다. 교환대상은 지도읍 소재 사유지 107필지, 12만 3100㎡와 신의면 군유지 1개 필지, 21만8415㎡다. 문제는 당시 공고문에 교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군의원이었던 A 전 군의원 배우자 B 씨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 공고문 내용도 없던 지도읍 광정리 일대 107여 필지와 토지교환이 무리하게 진행됐다. A 전 의원은 평소 매입을 희망했던 신의면 군유



신안군 지도 기후대응숲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군유지와 교환한 지도읍 광정리 일원 부지에 수백여그루에 나무가 식재돼 있다.

“공유재산 교환·행정절차 위반 무리하게 추진”
특정인 염두 불법적 교환 정황...이해충돌 지적도

지 1필지와 부지 교환이 이뤄지자 미공개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가족 명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공유재산 교환한 사유지인 지도읍 초입부터 라일락공원까지 약 6km 구간의 농경지에는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어 의문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교환된 신의면 군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교환대

상에 해당하지 않은 데다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에 매각해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교환이 진행됐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실제로 교환된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수익만 연간 3억원 대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무리한 토지 교환으로 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배임)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선 개입과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전 군수가 업무보고회에서 토지 교환을 여러 차례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공유재산 교환에는 단체장의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전 군수가 직권을 남용해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인 A 전 의원은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표결에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도 그대로 강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 신안군의 공유재산 교환사업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A 전 의원의 토지 매입 의혹과 불법 행정 정황이 포착돼 신안군에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유재산 교환 과정에 걸친 불법 행위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임지락 화순군수는 최근 군청에서 칠총로 상점가와 자치섬 상점가를 각각 골목형상점가 2·3호 지정하는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청

화순,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칠총로·자치섬 상점가...상권 활성화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화순칠총로 상점가와 화순자치섬 상점가를 각각 제2호와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정서 전달식에는 임지락 화순군수를 비롯해 칠총로 상인회장과 자치섬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화순칠총로와 화순자치섬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온누리상

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점가 홍보 등을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4년에 지정된 제1호 중앙로 골목형상점가의 구역 확대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진각로와 시장길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이번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장성, ‘생명존중 안심마을’
남·북일·북이면 13곳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남면, 북일면, 북이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으로 지정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군은 최근 학교, 지역아동센터, 종교시설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방문하는 기관들을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에 포함시키고 현판을 전달했다. 지정 기관들은 5대 핵심활동인 △자살 고위험군 주민 발굴, 개입 및 치료 연계 △자살예방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수단 차단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김한중 군수는 “앞으로도 생명존중문화가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 및 지역사회와 꾸준히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6669@

영광, 공공비축 친환경벼 1660t 매입
출하 농가 잔류농약 자체 사전검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친환경 농업 확산과 친환경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벼 중 친환경벼 1660t을 매입한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공공비축 친환경벼 매입량은 2023년 244t, 2024년 344t, 2025년 623t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약 2.7배 증가한 1660t까지 확대한

다. 친환경벼는 일반벼 1등급 가격보다 5% 높은 가격 매입하며, 올해부터 단백질 함량 검사를 새롭게 도입해 상위 30%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군은 친환경벼 출하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부담 없이 잔류농약 자체 사전검사를 지원한다. 다만 사전검사는 출하 전 농가의 단순

참고를 위한 자체적인 확인 절차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안전성 검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검사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아울러 잔류농약 검출 농가의 공공비축 친환경벼 매입 제한 기간은 2025년까지는 5년이었으나, 2026년부터 3년으로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벼 매입 확대와 가격עד, 단백질 함량에 따른 추가 가산금 지급, 출하 전 잔류농약 자체 사전검사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무안,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청소년 기관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최근 한국그린케어 치유농장에서 뇌졸중 후 편마비 증상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첫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2026년 유관기관 연계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업은 기존 농촌체험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보건·복지·청소년 분야 유관기관과 치유농장을 연계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프로그램은 11월 말까지 관내 치유농장 3개소에서 기관별 8회기로 운영된다. 한국그린케어는 무안군보건소와 연계해 뇌졸중 후 편마비 증상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이러브팜과 꽃과함께도 각각 청소년기관과 복지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이 단순한 농촌체험을 넘어 보건·복지와 꽃과함께도 각각 청소년기관과 복지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발정원 속 행복찾기”에서는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비접촉 방식의 얼굴 영상 측정 장비와 손끝 맥파 측정 장비, 악력기, 설

문지 등을 활용해 참여자의 심리·생리 상태를 사전 평가했다. 군은 이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과 신체·정서적 상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측정 결과와 비교·분석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이 단순한 농촌체험을 넘어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와 연계해 다양한 대상자의 신체·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치유적 가치를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접목해 무안형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담양, 농업인상담소 중심 현장 과제교육
지역 특화품목 재배기술...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읍면별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과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영농 현장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교육은 읍면 농업인상담소가 지역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품목별 재배기술을 교육하고, 영농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덕면에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참송이버섯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 안정적인 재배기술과 상품화 전략을 다루고 현장 견학과 상담을 병행했다. 이어 무정면에서는 지난날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고품질 방울토

마토 수경재배 생산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첫 교육에서는 총남 부여군에서 수경재배 전문가를 초빙해 근근 환경과 양액재배 관리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사항과 생육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금성면에서는 8월과 27일 딸기 재배교육을, 수북면에서는 11월 16일과 23일 블루베리 전정교육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상담소는 농업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농현장의 의견을 듣는 창구”라며 “지역별 수요와 품목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재배기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